

2008년 등급판정결과 최우수상 수상 '한우물 농장' - 이화종 농가

부산경남지역본부 과장 김영환



(이화종 대표)

쪽빛 남해바다가 바라다 보이는 공기 맑은 산 중턱에 자리한 '한우물 농장'에는 지난 27여 년간 한우사육에만 종사한 이화종 대표(現 남해한우협회지부장)가 심혈을 기울여 사육하고 있는 보물섬한우 150여두가 있다.

전국 제일의 한우를 위한 노력

일찍이 한우의 고급화를 위해서는 거세를 하여야 한다는 신념과 고품질 한우 생산의 기반 형성을 위해 유전적으로 우수한 형질의 한우를 선택하여 다년간의 후대검정을 실시하여 송아지를 생산한 결과, 지금은 80% 이상을 자가 생산을 통해 송아지를 충당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남해군에서 혈통보존을 위해 개설한 남해군 송아지 경매장에서 구입하고 있다. 생후 3개월령에 이유를 하여 육성기까지 고품질 사료를 급여 후, 약 10,000m²의 조사료 생산지에서 생산되는 청보리 등을 위주로 생후 13개월령까지 급여하여 육성 관리한다. 이후 출하 때까지 육질개선을 위한 사양관리는 배합사료와 청보리를 배합 후 급여하고 30~32개월 이후에는 배합사료의 급여비율을 높이고 등지방두께 관리에 중점을 두어 사양하며 평균 700kg정도의 생체중이 되었을 때 출하를 하고 있다.

고품질의 청정한우가 생산되는 곳

섬이라는 특징을 가진 남해군은 혈통이 보존된 송아지를 생산하여 '전용 송아지 경매장'을 통해 남해 지역농가에 공급하고 있다. 또한 맑은 공기를 마시고 자란 청정한우를 널리 알리고 안정적 판매를 위한 유통망도 형성되어 있어 회원농가는 고품질의 한우생산에만 전념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이화종 대표는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 매년 우수 농가를 표창하는 '등급판정결과 우수농가 시상식'에서 지난 2008년 최우수농가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전국 제일의 한우생산지를 만들자

보물섬 한우'의 전국화 위하여 많은 농가와 관련 단체들이 함께 노력하는 가운데 쇠고기 이력추적제에 많은 공을 들여왔다. 현재 남해축협 계통출하를 통해 쇠고기 이력추적제 적용이 가능한 도축장 및 가공장을 거쳐 판매장까지의 유통단계를 체계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남해지역이 전국 제일의 한우생산지가 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한우물 농장이 한우 기서 육질등급 출하율)

등급	1 ⁺⁺	1 ⁺	1	2	3	D	계
누수(두)	17	12	2	1	0	0	32
출현율(%)	53.1	37.5	6.3	3.1	0.0	0.0	100
전국(08년)	12.3	30.3	33.1	21.4	2.7	0.2	100
전국대비	40.8	7.7	26.8	18.3	2.7	0.2	-